

강원지역 제과발전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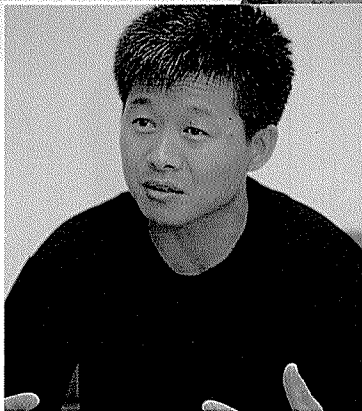
춘천 지부

춘천은 강원도 제1의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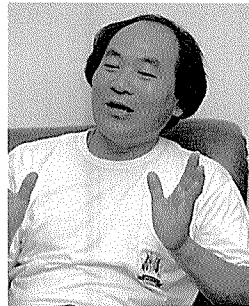
이에 걸맞게 가장 많은 회원과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지회의 임무를 맡고 있는 춘천 지부는 올해 시작한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회원 이익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소비 확대를 위한 행사와 내년 과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지부로 위상에 맞게 앞으로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춘천지부는 지난 4월 회원의 노력으로 자체 사무실을 마련했다.



최덕성 지부장



주영환 부지부장



신수강 부지부장



현택웅 이사

여름이 물러가는 8
월의 끝자락. 서울에
서 춘천으로 향하는
경춘가도에는 제철 장
마가 무색한 장대비가
차창으로 쏟아졌다.
평소에도 이 길은 드
라이브코스스로 이롭나
있지만 빗속에서 보는

산과 강의 아름다운 경치도 나뭇대로의
정취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도로 가까
이 급하게 흘러가는 강물을 따라 연이은
산들이 강에서 피어나는 물안개에 허리를
감고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기를 수차
레 춘천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흔히 호반의 도시라 불리는 춘천은
강원도의 대표적 도시이다. 도청 소재지
로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일 뿐더러
인구 22만명을 자랑하는 강원도 최대 도
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점은 제과인
의 구심체인 춘천지부와도 일치한다.

1987년 창립, 현재 5개 회원업소 보유

춘천지부(지부장 최덕성)가 창립한 것
은 1987년으로 올해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타 조직이 보통 십수년 이상의 역
사를 지니고 있는데 비해 짧은 연륜에 속
하지만 현 회원이 57명으로 강원 지역
최대의 회원을 자랑한다.

현재 춘천 지부는 최덕성 지부장을 비
롯해 각각 2명의 고문과 부지부장, 감사,
8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지역
장 제도를 두어 6명의 지역 이사가 각각
해당 지역 회원을 10여업소 정도를 관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춘천이 지역 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은 해당 이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몇개 업소 회원을 전담케
해 회원의 의견 수렴과 회원과 직접 관련
이 있는 전달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유대 강화를 위한 전초 기지의 역할

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춘천 지부는 회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공동 구매
사업의 전개가 그것이다. 올해 처음 시작
한 이 사업은 회원의 제과점 경영에 필요
한 재료 중 계란, 우유와 가스를 공동 구
매를 통해 값싸게 구입해 회원에게 공급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부사무실 마련과 공동구매 시작으로 발전 기틀 마련

최근 우리 제과인의 구심체인 각 지회
및 지부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런 면에서 볼 때 춘천 지부도 예외는 아
니다. 먼저 큰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춘천 제과인의 등지라 할 수 있는 지부 사무실 마련이 그것이다.

지난 4월 20일 춘천시 퇴계동 새로 들어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새로 마련한 8평의 지부 사무실은 춘천 지부 회원의 역량을 가늠케 한다는 데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60여명에 못미치는 회원을 지닌 조직체로서 자체 사무실을 갖추고 더 나아가 상근 직원을 두고 살림을 꾸려간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량은 바로 회원의 친목과 돈독한 유대 강화의 힘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춘천 지부가 회원의 유대 강화를 위해 힘써온 노력은 남다르다. 1년에 한두번 기회 있을 때마다 지부 차원의 야유회를 실시해 단합을 꾀하고 있으며 각 회원마다 경조사에 있을 때 서로 돕고 돕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 지부 회원의 최대 화합의

장은 뭉니뭉니해도 1년에 1번 실시되는 '강원 지역 과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라 할 수 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 4개 지부가 참여하는 이 대회는 지난 1993년 처음 시작된 강원 제과인 대화합의 한마당으로서 이 대회 시작의 모태가 춘천과 원주 지부로부터 시발된 것으로 이 지역 화합의 토대 구축에 끼친 춘천 지부의 역할이 지대하고 회원이 가지는 자긍심도 크기 때문이다.

올해 강릉에서 개최돼 3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강원 지역 300여 제과인이 한 자리에 모여 축구, 배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를 통해 동업일가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많은 춘천 지부 회원들도 동참해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확대 위한 행사와 내년 과업인 체육대회 개최

지난해 본회는 각 지회 및 지부의 조직 활성화에 위해 도지회를 결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춘천 지부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지회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올해 춘천 지부는 그 위상에 걸맞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제3회 과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춘천 지부는 이 대회창설의 모태로서 내년 4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인다. 그리고 그 활동은 내부적인 것과 대외적인 활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앞에서 언급했듯 춘천 지부는 올 초 최덕성 신임 지부장 취임을 계기로 처음으로 공동 구매 사업의 전개를 통해 회원 이익의 극대화를 꾀한 바 있거니와 앞으로 더 회원 유대 강화를 다지는 한편 지부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회원의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춘천 지역 제과 소비 확대를 위해 전회원이 참석할 가운데 학교 운동장을 빌려 제조 시설을 갖추고 즉석에서 제품을 제조해 제품 설명과 함께 무료 시식을 실시하는 행사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대외적 활동으로 96년 5월쯤 춘천에서 개최되는 제4회 강원도 과업인 한마음 체육대회의 개최 지부로서 임무를 무난히 수행하기 위해 벌써 준비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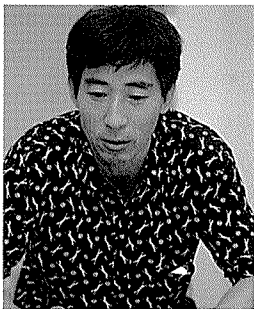
특히 내년 춘천 지부가 개최하는 이 체육대회는 기존 4개 지부 외에 새로 창립한 동해시 지부가 정식으로 추가 참여할 예정이어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5월쯤이면 강원 지역 제과인의 대화합의 장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춘천 지부 회원의 역량이 다시 한번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 박종선]

(출 박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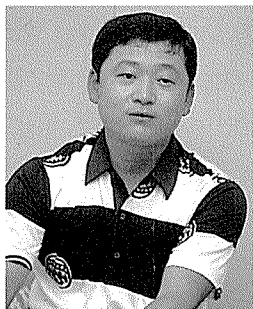


!영성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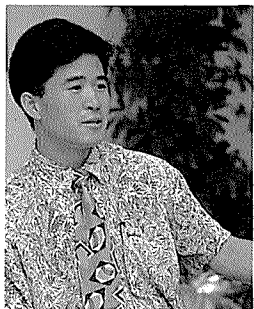
춘천지부는 강원지역 제과인 대화합의 장인 과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있게 한 모태다. 내년 4회 대회를 개최하는 춘천지부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 중이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역량이 다시 발휘될 예정이다. 또한 춘천 지부는 회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공 시설을 이용 제품 제조와 설명을 병행한 무료 시식 행사를 실시해 지역 소비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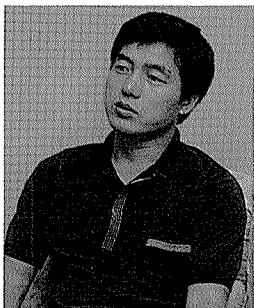
최병은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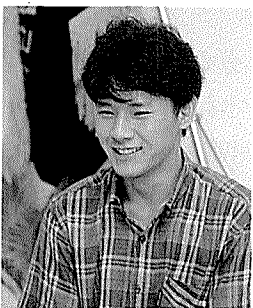
이인석 이사



최기동 총무이사



현영선 감사



김일우 재무이사



박순덕 간사